



*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EXCLUSIVE

vol. 338 | 2026.6.9.

한국교회 직분·제도 인식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5 자영업 실태
2. 3040 직장인 여성 번아웃

넘버즈 칼럼

의인의 노년: 초고령 사회, 교회의 대응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회 제도와 관습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행정·제도 관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직분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행 당회나 제직회 등 행정 회의가 효율적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일수록 기존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담임목사의 70%는 ‘직분제 개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익숙한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제도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이번 「넘버즈 338호」가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제도·행정 구조를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데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직분·제도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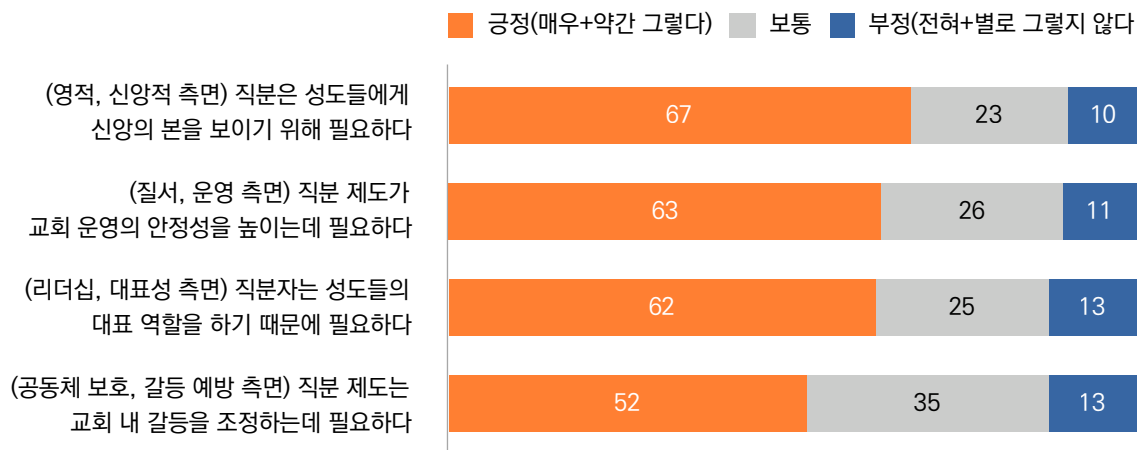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교회의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521명(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23일(총 5일)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목회자 67%, '신앙의 본' 보이기 위해 직분 필요!

- 직분 제도 필요성을 느끼는 구체적 측면으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영적·신앙적 측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교회 운영의 안정성 향상(질서·운영 측면)'(63%), '직분자의 성도 대표 역할(리더십 측면)'(62%)도 60% 이상을 동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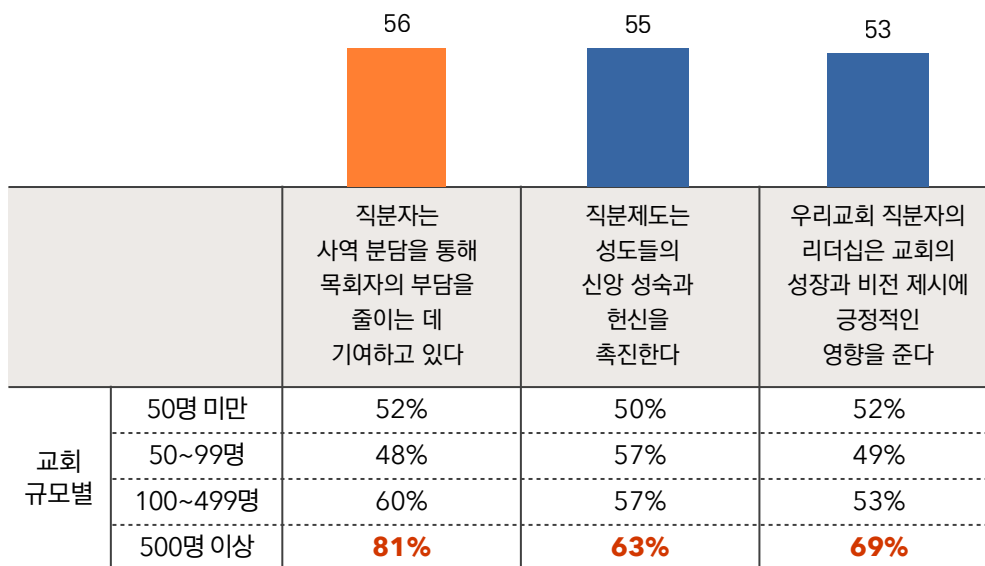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긍정적 역할 인식 높아

-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담임목사들은 '목회자의 사역 부담 경감'(56%),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헌신 촉진'(55%), '교회 성장과 비전 제시에 긍정적 영향'(53%)에 50% 남짓만이 동의했다.
- 다만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목회자의 사역 부담을 줄여준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직분자들의 사역 분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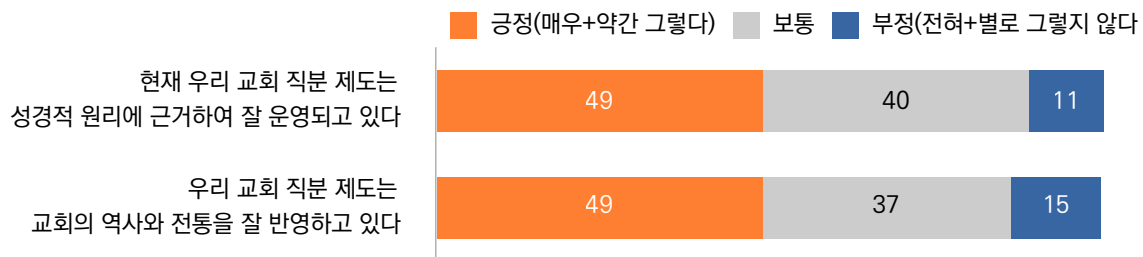


*5점 척도

현 시무교회 직분 제도 운영, 교회 규모 클수록,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성경적' 잘 운영된다고 평가!

- 현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와 관련해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각각 49%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만 동의해, 이 역시 나머지 절반은 현 직분 제도가 성경적 원리나 전통을 반영하여 잘 운영된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교회 규모별 인식 격차인데,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성경적 원리대로(42%), 교회 역사/전통을 잘 반영하여 운영된다(41%)는 응답이 40%대 초반에 그친 반면, '5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는 동일 항목이 각각 67%, 58%에 달해 교회가 클수록 현재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 운영에 대한 담임목사의 긍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인식 (담임목사, N=521,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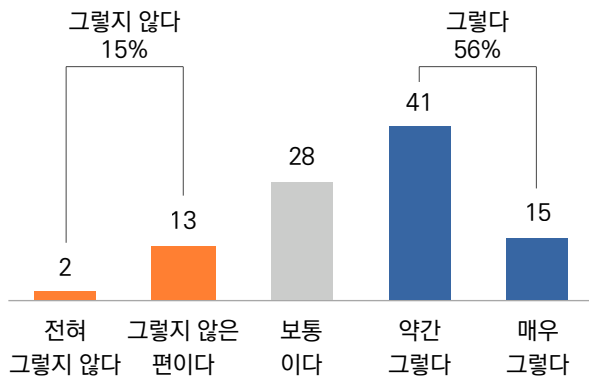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긍정' 인식 (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현재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42%	41%
	50~99명	49%	50%
	100~499명	53%	57%
	500명 이상	67%	58%
교인 수 증감별	증가	52%	45%
	감소	44%	47%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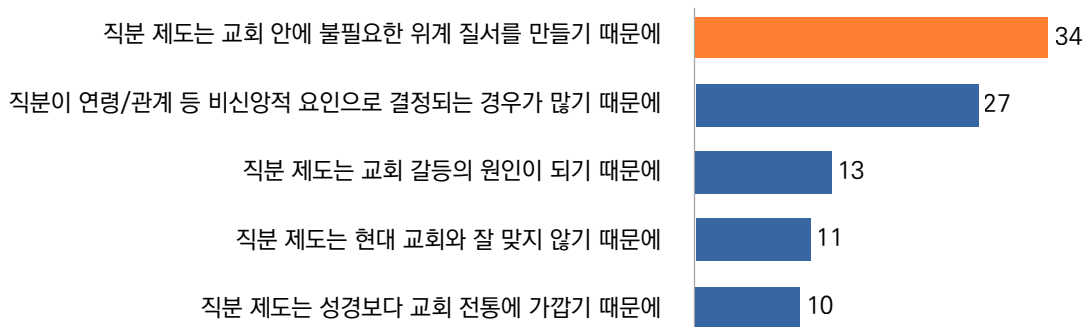
[표]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교회에는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2%
	50대	57%
	60대 이상	60%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4%
	50~99명	56%
	100~499명	55%
	500명 이상	67%

직분제 필요없는 이유, 1위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형성'!

- 앞서 '교회에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에 그렇지 않다(전혀+별로)고 응답한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가장 많은 34%가 '교회 안에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연령이나 관계 등 비신앙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27%),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13%) 등의 순이었다.
-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닌 '서열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세속적 기준의 개입'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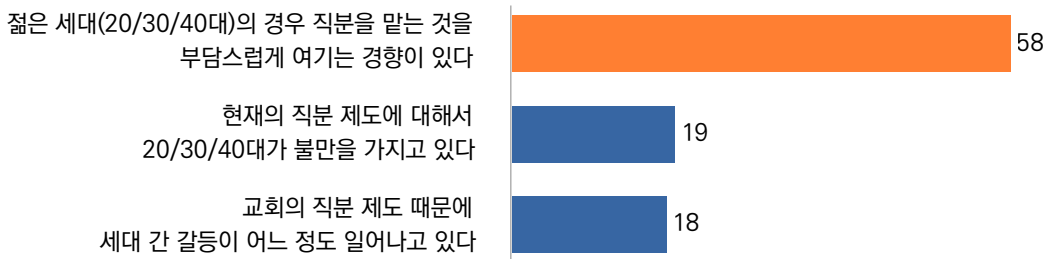
[그림] 직분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직분 제도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N=82, %)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을 담임목사에게 묻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까이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다만 '젊은 세대가 현재 직분제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19%)거나 '직분제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18%)는 응답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갈등의 표출보다는 '자발적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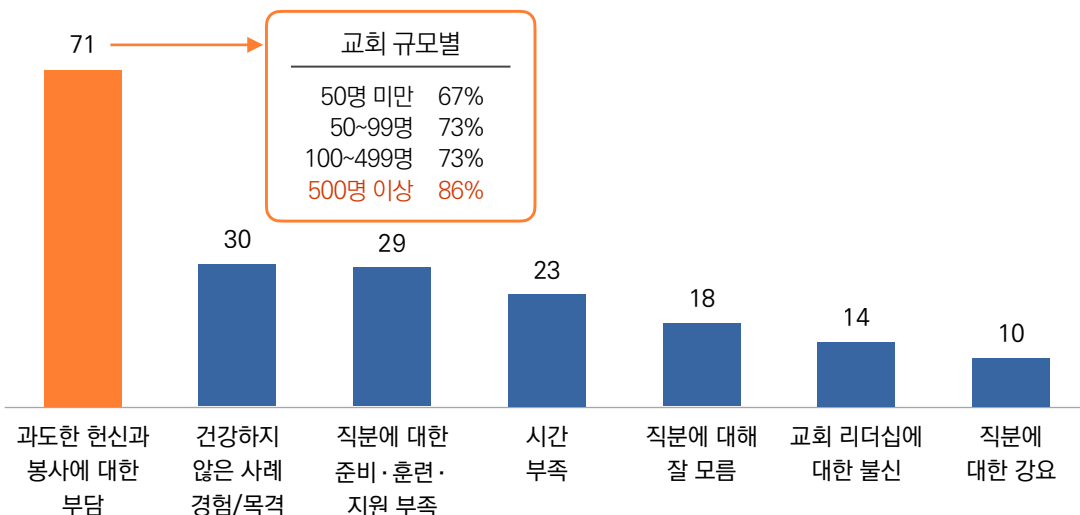


*5점 척도

젊은 세대의 직분 기피 원인,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이 압도적(71%)!

-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답한 담임목사들은 그 이유(1+2순위)로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러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감'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정비례하여 나타났다. '50명 미만' 교회 67%, '50~99명' 73%,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86%까지 높아져, 대형교회일수록 직분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 큼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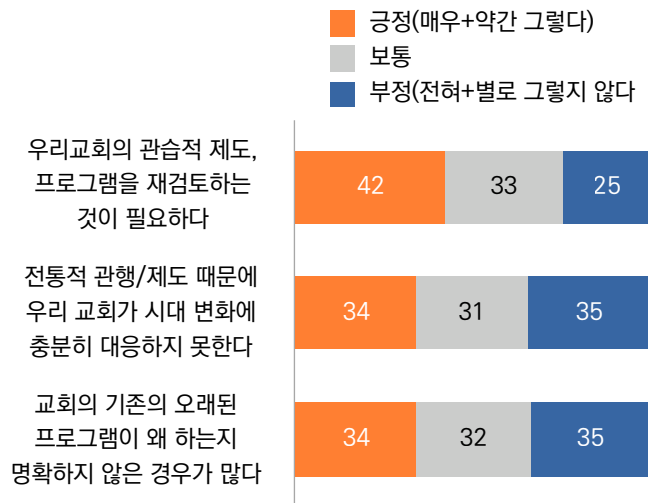
[그림] 젊은 세대가 직분 맡는 것을 꺼리는 이유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상위 7개, 1+2순위, N=303, %)



40대 이하·쇠퇴하는 교회 목회자일수록, '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시급'!

- 교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목회자의 연령과 교회의 성장세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우리 교회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에 담임목사의 42%가 동의한 가운데, '40대 이하' 목회자는 절반가량인 51%가 동의해 가장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 또, '전통적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34%)와 '교회의 기존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34%) 역시 '40대 이하' 목회자의 불만 표출이 가장 많았다.
- 교인 수 증감별로 보면 '감소(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증가하는 교회에 비해 10%p 안팎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위기 국면에 처한 교회일수록 기존 관습의 변화를 더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교회 제도 및 전통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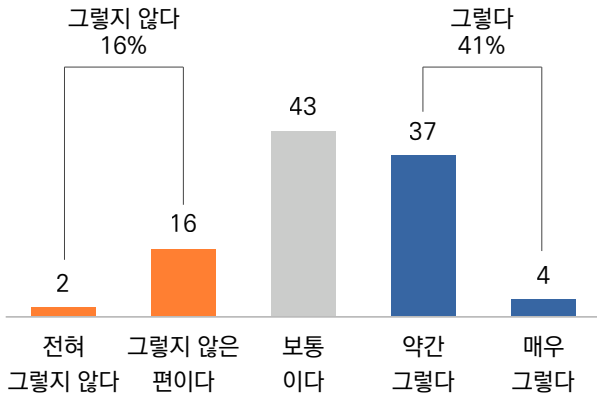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1%
	50대	43%
	60대 이상	32%
교인 수 증감별	증가	39%
	감소	5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당회·제직회 등 행정 회의 효율적’ 동의율, 절반 못 미쳐

- 교회 행정 관습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등 교회의 회의 및 보고 방식이 효율적이다’라는 응답은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불만은 젊은 목회자 층과 소형교회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40대 이하’ 목회자(37%)와 ‘50명 미만’ 소형교회(36%)의 경우 동의율이 30%대에 그쳤다.

[그림] 교회 행정 관련 관습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교회 회의/보고 방식은 효율적이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교회 회의·보고 방식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교인 총회 등)은 효율적이다
연령별	40대 이하	37%
	50대	45%
	60대 이상	42%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36%
	50~99명	47%
	100~499명	44%
	500명 이상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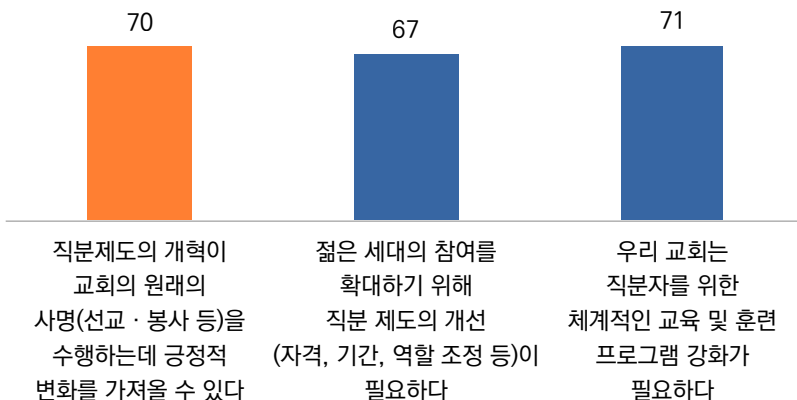
04

[개선 방향]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으로 담임목사 10명 중 7명은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71%)하며, ‘직분 제도의 개혁이 교회의 원래 사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70%)이라고 기대했다.
- 또,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도 67%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그림]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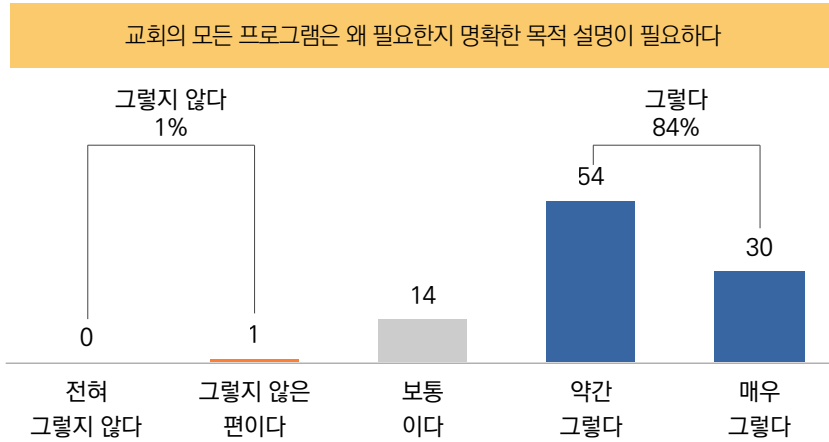


*5점 척도

목회자 대부분(84%),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 필요'!

-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을 살펴보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목회자의 동의율은 84%에 달해 매우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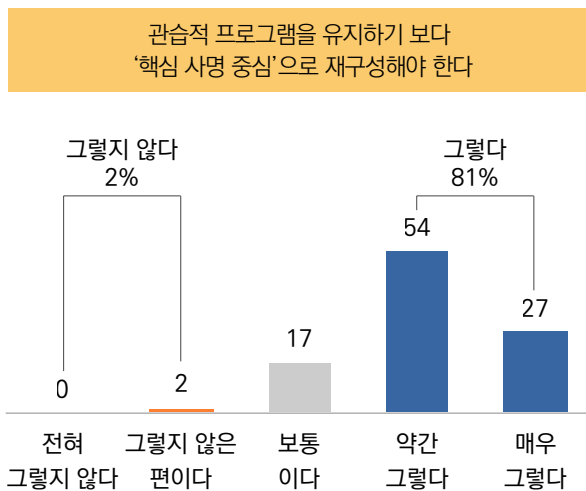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핵심 사명 중심으로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해야' 81%

-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 중 '관습적 프로그램 유지보다는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목회자의 10명 중 8명(81%)이 동의했다. 특히 '핵심 사명 중심 재구성' 요구는 '40대 이하' 목회자(86%), '500명 이상' 교회(85%)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관습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보다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연령별	40대 이하	86%
	50대	83%
	60대 이상	71%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78%
	50~99명	84%
	100~499명	82%
	500명 이상	85%
교인 수 증감별	증가	87%
	감소	79%

‘성장하는 교회’의 직분·제도 특징,

1. 성경적 원리 근거한 직분제 운영

2. 직분제 순기능 제대로 작동

3. 핵심 사역 중심 프로그램 재구성에 높은 의지!

-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교회 직분·제도 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각각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3가지씩 짚어본다.
- 먼저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쇠퇴하는 교회 대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를 잘 운영한다는 평가가 높았고,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으며, 핵심 사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회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와 비교해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였고, 교회 당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직분·제도 관련 성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비교 (답임목사, N=521, %)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 잘 운영 (성장하는 교회 52%, 감소하는 교회 44%)	1.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부담, 불만 등)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경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직분 제도에 대해 20~40대가 불만을 갖고 있음 (성장 19%, 감소 29%) • 교회 직분 제도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성장 16%, 감소 25%)
2.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제대로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 부담 감소에 기여 (성장 64%, 감소 47%) • 성도 신앙 성숙 촉진 (성장 55%, 감소 51%) • 교회 비전 제시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성장 55%, 감소 50%) 	2.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불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필요 (성장 39%, 감소 50%) • 전통적 관행/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 못함 (성장 30%, 감소 40%)
3. 핵심 사명 중심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요구 높음 (성장 87%, 감소 79%)	3. 교회 당회, 제직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정 인식 낮음 (성장 48%, 감소 30%)

이번호 요약

1.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2.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을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3. 목회자 67%, 젊은 세대 참여 확대 위해 직분 제도 개선이 필요!

직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 목회자의 67%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직분자반 (세움북스, 안재경 저)

관련 성경 구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관습적 제도가 더 이상 당연한 전통으로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4%)가 직분 제도의 필수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행정 회의의 비효율성(42%)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과도한 봉사 부담(71%) 때문에 직분을 기피한다(58%)는 결과는, 직분제가 섬김의 통로라기보다 부담과 책임의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분제 개선은 단순히 직분 명칭을 바꾸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은 직분을 '서열'이 아니라 '사역 기능'으로 재정 의하는 것이다. 장로·집사·권사 등 기존 직분이 교회 안의 지위나 연공서열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 직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기제, 사역별 배치, 교육·평가·재위임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장기 헌신을 전제로 한 무거운 직분보다 일정 기간 특정 사역을 맡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

직분제 개혁의 방향은 '폐지'가 아니라 '본질 회복'이어야 한다. 직분이 전통 보존 장치에 머물면 불필요한 위계 질서(34%)로 굳어질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섬김과 돌봄의 책임 구조로 재정비될 때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를 성경적으로 잘 운영한다고 평가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교회는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 회의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기여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서열과 관행적 프로그램을 줄이고, 말씀·교제/돌봄·제자훈련·다음세대·선교 등 핵심 사명에 직분과 조직을 다시 연결할 때, 직분제는 부담의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섬김의 구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1. 2025 자영업 실태



2. 3040 직장인 여성 번아웃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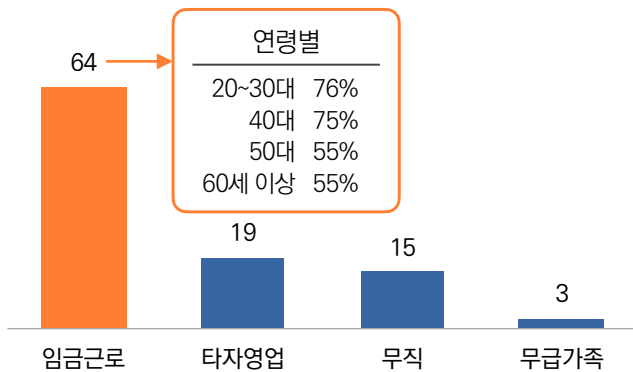
의인의 노년: 초고령 사회, 교회의 대응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 3명 중 2명이 임금근로자

-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영업 성과와 부채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 중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먼저 자영업 진입은 누가 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 출신이 6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자영업'에서 진입하는 비율이 19%, '무직'도 15%로 낮지 않았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임금근로' 출신 비중이 4명 중 3명(75~76%)꼴로, 50대 이상(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유입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자영업 진입 분포 (자영업자*, N=30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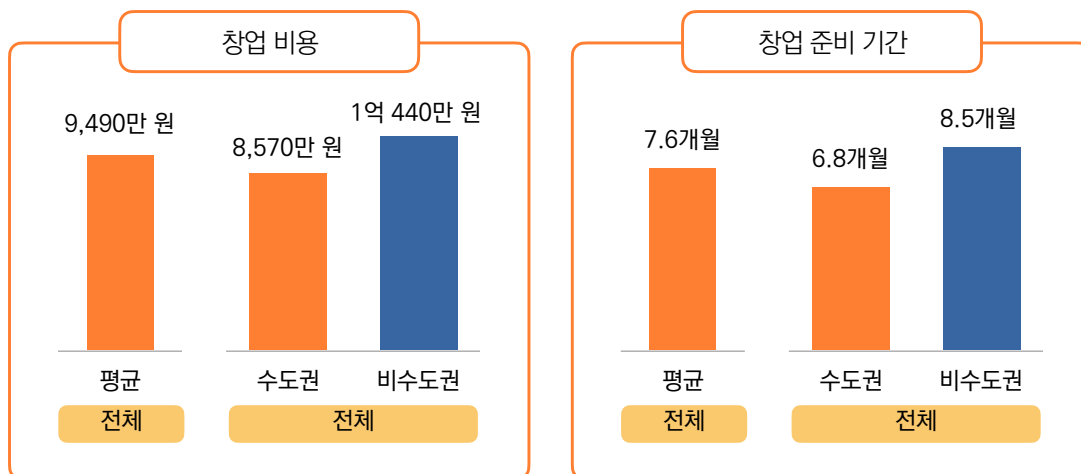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분석대상은 소매업, 음식주점업, 숙박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그 외 개인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연 매출 10억 이하의 자영업자이며, 일부 분석은 연령별 샘플 수 제한으로 소매업 및 음식·주점업 중심으로 분석함

자영업 창업비용, 평균 9,490만원!

- 자영업(소매업 및 음식·주점업 자영업자 기준) 전체 창업 비용은 평균 9,490만 원, 창업 준비 기간은 7.6개월로 조사됐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준비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영업 창업 비용 및 창업 준비 기간 (소매업/음식·주점업 자영업자, N=2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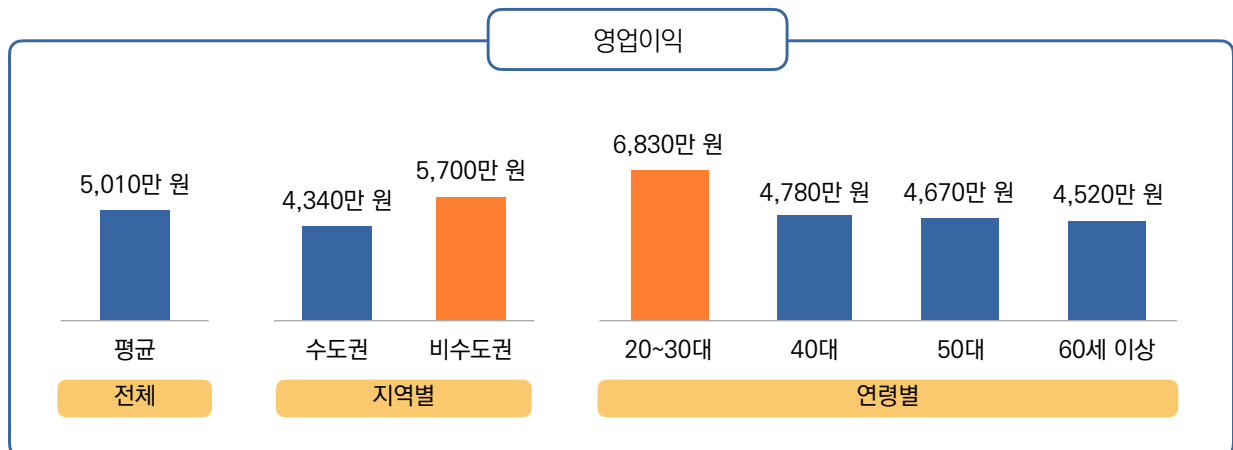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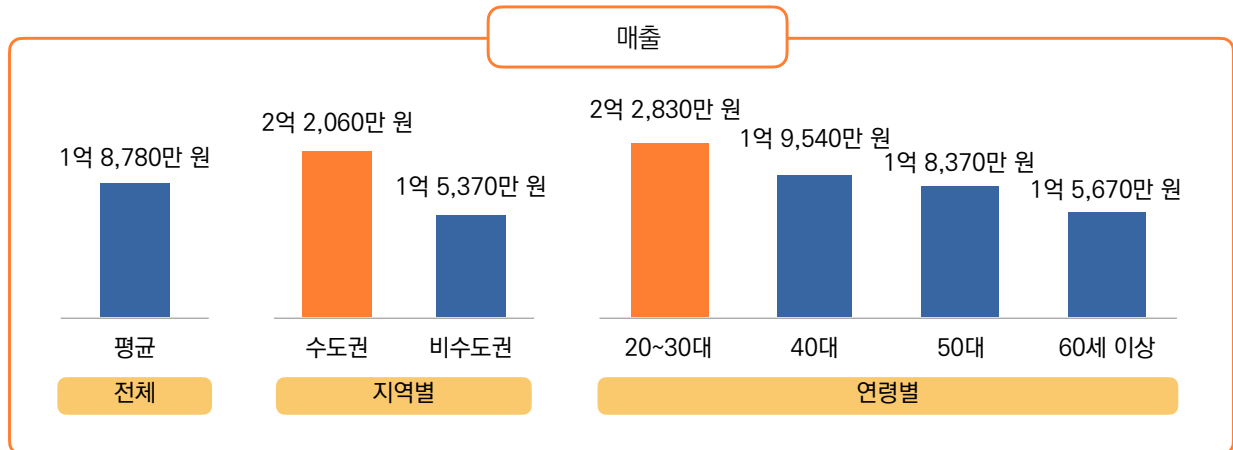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자영업 평균 영업이익 5,010만 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번다!

- 자영업 대표 업종인 소매업, 음식·주점업 중심으로 연매출 및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전체 연평균 매출은 1억 8,780만 원이었고, '수도권'과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영업이익은 평균 5,010만 원으로 전체 연평균 매출의 약 27%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봤을 때 매출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5배 가까이 크나, 영업이익은 수도권(4,340만 원)이 비수도권(5,700만 원) 대비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매출원가(재료비), 임차료, 세금 등 비용 구조 측면에서 수도권이 불리함을 보여준다.

[그림] 연매출 및 영업이익 (소매업/음식·주점업 자영업자, N=2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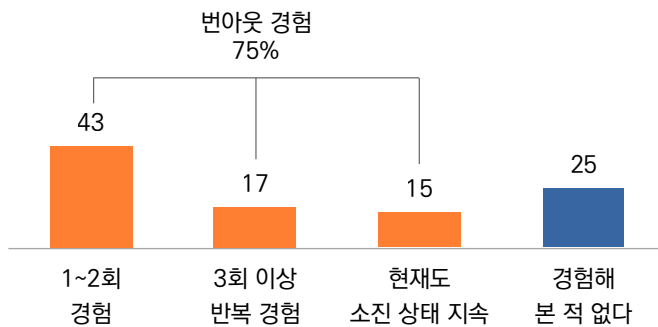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3040 직장인 여성 75%, '최근 6개월 내 번아웃 경험'!

- 30~40대 직장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피엠아이)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그중 번아웃 관련 결과를 살펴본다.
- 지난 6개월간 번아웃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3040 직장인 여성 4명 중 3명꼴인 7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빈도별로 살펴보면 '1~2회 경험'이 43%로 가장 많았으나, '3회 이상 반복 경험'(17%)과 '현재도 소진 상태 지속'(15%)이라는 응답도 33%로 나타나, 일하는 3040 여성 3명 중 1명(32%)은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번아웃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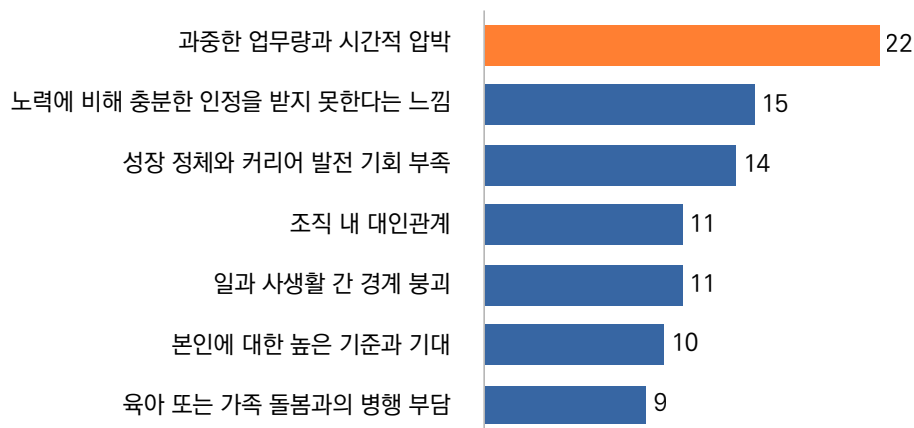
※출처 : 헬스조선, "연휴 보내도 선 것 같지 않다"는 여성, 번아웃 의심, 2026.05.2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원출처 : 피엠아이(PM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 2026.05(전국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

3040 직장 여성의 번아웃 주원인,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

- 3040 직장인 여성들이 번아웃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직장 내 '업무 환경'과 관련이 깊었다. 최근 6개월 내 번아웃을 경험한 3040 직장인 여성들에게 그 원인을 묻은 결과,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력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15%), '성장 정체와 커리어 발전 기회 부족'(14%)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 과부하뿐만 아니라 인정과 성장에 대한 갈증이 소진을 부추기는 주요인인 셈이다.

[그림] 번아웃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번아웃 경험한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상위 7개, %)



※출처 : 헬스조선, "연휴 보내도 선 것 같지 않다"는 여성, 번아웃 의심, 2026.05.2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원출처 : 피엠아이(PM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 2026.05(전국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

의인의 노년: 초고령 사회, 교회의 대응

문장환 목사
(진주삼일교회)

들어가며: ‘초고령사회’라는 도전과 사회의 시선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노동, 복지, 사회구조, 가족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당한 도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비율이 2024년 기준으로 22.1%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들을 안기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기를 단순하게 3기로 나눈다면, 1기는 성장과 배움과 준비의 시기이고, 2기는 역할 수행과 생산의 시기이고, 3기는 성찰과 통합과 완성과 여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기 노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신체가 무너지고, 기능이 고장 나고, 사회적 역할이 소멸하고, 잠재적인 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성찰과 통합과 완성을 위한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세상은 노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다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노인을 대합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적인 시선인데,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경제활동에서 저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가치를 따집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노년은 쓸모가 줄어든 비생산적인 시기입니다. 사회에 기여보다는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나 연금제도를 위기에 봉착시키는 존재로 봅니다.

둘째는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시선인데, 사람을 신체적인 기능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가 쇠퇴하고 약해지고, 기능들이 저하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써보지만 실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보는 시선인데,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노인은 아무래도 의존적인 존재이고 도움과 관리를 받아야 할 비자율적인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볼 때, 노인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노화로 인해 불쌍스러운 존재이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사회가 노후 생계비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짐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노년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선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섭기만 합니다. 사실 이 사회를 이만큼 되도록 일구어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이렇게 누리도록 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래도 발로 뛰고 손으로 수고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노년 세대가 가장 많이 수고했습니다. 억압된 일제강점기, 비참한 6.25 한국전쟁 시대, 헐벗고 배고픈 보릿고개 시대, 땀범벅으로 살았던 산업화 시대, 눈물과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민주화 시대, 사실 이분들이 일구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디찬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2026 정치\(인\) 및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6.4.

[무효표만 109만표...누군지도 모르는 교육감 아예 안 찍었다](#)

중앙일보_2026.5.12.

사회 일반

[한국인 가장 많이 쓴 AI는 챗GPT...검색 1위는 네이버](#)

연합뉴스_2026.6.3.

[젊은층 '갓생' 열풍에 소주보다 커피...주류 소비 역대 최대폭 감소](#)

동아일보_2026.6.2.

[서울 고교교사 87% "중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연합뉴스_2026.6.2.

[한여름 '가뭄에 단비'... 기본소득이 바꾼 농어촌 풍경](#)

국민일보_2026.6.5.

[담배 못 끊는 진짜 이유...중독보다 무서운 '직장 스트레스'](#)

서울신문_2026.5.28.

[국민 10명 중 9명 정년연장 찬성...2030은 청년일자리 잠식 우려](#)

연합뉴스_2026.6.7.

[수도권 통근 20년 새 19분 늘어... 저소득층 건강부터 값아먹었다](#)

서울신문_2026.6.2.

[더 세진 여풍... 5급 이상 지자체 女공무원 1만명 첫 돌파](#)

국민일보_2026.6.3.

[2026 아날로그 감수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6.2.

아동 · 청소년 · 청년

["회계사에 관심있는 아들, 어떡하죠"...AI시대 '살아남을 전공' 찾기 혈안](#)

매일경제_2026.6.1.

[달콤한 가향담배, 청소년 첫 흡연의 통로 됐다](#)

데이터숨_2026.5.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노인 절반 “기초연금 수령액 월 40만원은 돼야”](#)

동아일보_2026.6.3.

경제 · 기업

[OECD, 韓 올 성장률 전망 1.7% → 2.6% 상향](#)

동아일보_2026.6.4.

[더 팍팍해진 2030… 가구 소득 줄었는데, 월세는 뛰어 ‘허덕’](#)

동아일보_2026.6.8.

[중소기업 女 월급, 대기업 男의 '3분의 1'… 벌어지는 '임금 격차'](#)

조선일보_2026.6.8.

국제 · 환경

[“우리도 이제 ‘잘 버는 아내’ 원한다”… 달라진 일본 남자들\[이세계도교\]](#)

국민일보_2026.6.2.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 진작에 넘었다](#)

데이터숨_2026.5.29.

건강

[매일 1시간 걷고 주 2시간 근력운동…사망 위험 45% ‘뚝’\[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6.4.

[걸음 느리고 악력 약하면 뇌졸중 위험 높아](#)

데이터숨_2026.6.2.

[“회사도 학교도 잘 다니는데 공허해요”… ‘고기능 우울증’ 뚝길래](#)

동아일보_2026.6.7.

기독교 · 종교

[설교 주제 1위 ‘위로’… “복음 중심 설교 더 필요”](#)

국민일보_2026.6.3.

[탈북민교회 10곳 중 7곳, 북한 출신 목회자가 이끈다](#)

국민일보_2026.6.2.

[美 개신교인 10명 중 3명 "주변에 신앙 알리지 않아"](#)

데일리굿뉴스_2026.6.2.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의 주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목회자 총 3,308명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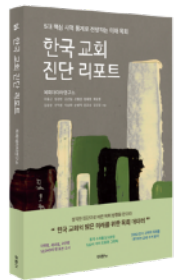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조동천 목사’와 함께하는 설교 아카데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목회 전략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6월 18일(목) 10:30~16:00
- 2) 대상 : 설교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목회자님, 신학대/신대원 학생
- 3) 강사 : 조동천 목사(예수분인 교회)
- 4) 장소 : 구로동로 47길 6, 3층(비온드처치)
- 5) 참가비 : 3만 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